
기획논문

한국 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

‘한국 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이라는 기획에 포함된 네 편의 글은, 2019년 12월 6일에 국가보훈처 후원, 한국역사연구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활동과 한국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2019년 한 해 동안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여러 행사가 열렸지만, 동 학술회의는 한국 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의 활동과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억을 짚어보는 자리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

동 학술회의에서는 모두 10편의 글이 발표되었는데, 이번 기획에는 총론 격인 도면희 님의 「한국 독립운동과 외국인 독립유공자」 외에 동아시아 즉 중국인과 일본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세 편의 글을 골라 게재했다. 중국을 다룬 글은 국민당계 인물을 살핀 문미라 님의 「중국인 독립유공자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사례 분석 — 황궈(黃覺), 두진웨이(杜君慧), 쓰투더(司徒德)를 중심으로」와 공산당의 활동을 분석한 김성호 님의 「중공 동북당 조직의 조선민족항일혁명투쟁 인식과 방침 정책」이다. 일본인의 활동을 다룬 글은 미즈노 나오키 님의 「1930년대 전반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의 사회운동과 그 역사적 의미」이다.

한국 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의 활동을 살피는 것에 더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들을 기억해 왔는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도면희 논문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포상된 외국인 독립유공자는 모두 9개국의 89명이다. 내역을 보면, 중국 40명, 미국 21명, 러시아 11명, 영국 6명, 캐나다 5명, 아일랜드와 일본이 각 2명, 멕시코와 프랑스가 각 1명이다. 외국인 독립유공자 포상은 이승만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이들에게 집중되었는데, 분단과 냉전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아나키즘 계열이나 이승만과 대립한 이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이다.

외국인 독립유공자 가운데 중국인이 40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국민당계 인물이다. 문미라 논문에서는 국민당계 인물이면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한인 사회주의자나 아나키스트와 교류한 황취에 주목해 국민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성 활동가 두진혜이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운동가로서 평가했다. 쓰투더(司徒德)와 중한문화협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당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을 현대 한중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시야를 제시했다.

김성호 님은 중국 연변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며 민생단 사건을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역에서 벌어진 한인 항일무장투쟁을 연구해 온 조선족 원로 학자다. 김성호 님의 연구와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웹진 ‘역사랑’(www.koreanhistory.org)에 실린 인터뷰가 참고가 된다. 김성호 논문에서는, 중국 공산당 동북지역 조직이 민생단으로 상징되는 초기의 오류를 딛고, 점차 동북 조선 민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이어지는 조선민족 ‘자치구’ 건립을 약속한 사실에 주목했다.

교토대학 명예교수 미즈노 나오키 님은 오랫동안 식민지 조선의 치안유지법을 연구해 왔다. 이번 논문에서는 재조일본인 즉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 가운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기소된 이들을 분석했다. 식민지 지배자였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식민지의 해방을 주장하거나 일본의 대륙침략에 반대했다. 비록 이들의 활동은 미약했지만, 식민지 사회에서 지배

자의 지위에 있는 재조일본인이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과 그 역사적 의미는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논문을 번역한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조은진 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문미라 논문에서는 중국인 독립유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당계 인물을 다뤘지만 그 가운데 비주류에 속하는 이들에 초점을 맞췄다. 김성호 논문은 중국 공산당 동북지역 조직의 활동을 분석했지만, 중국 공산당계 인물로 독립유공자가 된 이는 없다. 일본인 독립유공자는 변호사 후세 다쓰지와 박열의 부인 가네코 후미코 둘 뿐이다. 미즈노 논문에서 다룬 재조일본인의 사회운동은 한일 모두에서 잊혀졌다. 세 논문 모두 독립유공자라는 틀로 환원되기 어렵지만, 나름의 이념과 지향을 가지고 한국 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인을 다룬 셈이다.

도면희 논문에서는 외국인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해, 지역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동유럽, 일본으로 확대하고,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아나키즘, 이승만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립했던 민족주의 계열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을 도운 이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우리 사회의 균형 잡힌 역사적 기억을 세우기 위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다.

한편 위에 언급한 학술회의 자리에서 미즈노 님과 김성호 님은 본인의 글에 등장한 중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이 과연 분단된 한반도의 한쪽인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가 되기를 원했을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라도 타자의 이념과 기억 또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되는 것이겠지만, 김성호 논문에는 한국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더러 눈에 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냉전과 분단의 벽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자세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